



새로운 시도의 향연

New Nature

에디터 이은희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추구는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실험으로 가득한 옷가게 리플렉트 스튜디오(Reflect Studio) 매장은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풍경까지 그려낸다.



의류 브랜드 리플렉트 스튜디오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 맞춰 혁신적인 재료와 재활용 자재, 폐기물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Design / Salon Alper Derinbogaz
Location / 이스탄불, 튀르키예
Area / 37㎡
Photograph / Studio Majo



바닥은 재활용 금속 테라초로 마감하고 벽은 페일루미늄 판으로 덮었다.
천장은 전체를 정사각형 바리솔을 이어 붙였다.



NEW NATURE

여러 기업들이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오염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하며 환경을 위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 가능성은 이미 트렌드를 넘어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당연한 가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의류 브랜드 리플렉트 스튜디오도 이스탄불의 메트로폴(Metropol) 쇼핑몰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 맞춰 혁신적인 자재와 재활용 재료, 폐기물을 활용한 디자인 매장을 선보였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더니즘을 표현하고자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 할 만하다. AI가 디자인한 가구를 적용하는 등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이 특징이며 모든 공간에 금속과 비슷한 회색 빛을 펼쳐 담백하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 바리솔 아래에 직선 형태의 조명을 5행 5열로 나란히 달아 장식 효과까지 높였다.





쇼핑몰 안에 자리한 매장은 입구 벽을 완전히 개방해 내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입구 천장 상단에는 직사각형으로 간판처럼 단을 내리고 그 위에 로고를 붙였다. 안쪽 공간은 왼쪽 벽 길이가 오른쪽보다 더 긴 사다리꼴이다. 바닥은 재활용 금속 테라초로 마감하고 벽은 페알루미늄으로 덮고 천장은 전체를 정사각형 바리솔을 이어 붙였다. 바리솔 아래에는 직선 형태의 펜던트 조명을 5행 5열로 나란히 달아 조도와 함께 장식 효과까지 높였다. 덕분에 전체적인 톤이 회색으로 차분하며 미래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각 가구들은 비대칭적으로 배치했는데 맨 앞에 직사각형 금속판 양쪽을 물결 무늬로 잘라낸 테이블을 놓고 안쪽에는 우주선을 떠오르게 하는 탈의실과 인간의 어금니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선반을 배치했다.



안쪽을 털로 채운 모습이 마치 생명체의 특징을 연상시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에는 건축에서 사용하는 재료인 시그마 프로필을 붙여 행거를 만들었다. 시그마 프로필 아래로 금속 봉을 추가로 연결해 형태를 다채롭게 확장했다.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탈의실은 비정형적 형태로 로켓처럼 상단이 볼록하게 솟아있다. 가벼운 유리 섬유를 사용해 이동이 편리하며 문은 위쪽에 창을 내 우주선 캡슐 같은 느낌을 준다. 탈의실 내부는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비되게 부드러운 털로 가득 채웠다. 안쪽을 털로 채운 모습이 마치 생명체의 특징을 연상시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에는 건축에서 사용하는 재료인 시그마 프로필을 가로로 붙여 행거를 만들었다. 시그마 프로필 아래로는 금속 봉을 추가로 연결해 형태를 다채롭게 확장하며 공간을 활용했다. ▮

